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
-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29일) 17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번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쪽방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예찰과 냉방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충분한 휴식 보장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맞게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